

The Reunified Korea Economy

月
刊

統一經濟

1997. 11 통권 제35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統一經濟

11
1997
제35호

편집자의 글
호기를 맞고 있는 남북 경협2

초 점
김정일의 총비서직 승계와 개방의 폭 • 이병두4

특 집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개방 전망
개방 확대를 위한 북한의 내부 정비 • 이재훈10
미국과 일본의 박정희식 북한 개발 • 남문희16
북한 개방의 진로와 우리의 대응 • 최신립24

기획연구
김정일의 '경제 지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 • 서동만32

논 단
한국과 비교한 북한 경제의 문제점:
대외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 김기수52
북한의 농업 개혁: '큰모' 재배법과 분조관리제 개선 • 권경복64

통일다리
북한의 가요 정책 • 김성진76

북한경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현황(VI)- '중소형 발전소' • 김승철81

통일연구
구 동서독 사회 통합 과정과 그 시사점 • 전성우93

해외기고
국유 콤비나트를 사유 기업으로:
구동독에서의 사유화 • 클라우스-디터 슈미트109

서 평
북한에 관한 폭 넓은 이해력과 예리한 통찰력 제고 • 전인영126
유석렬(1997. 8), 「북한의 체제 위기와 한반도 통일」, 박영사

통 권 제35호
등록번호 라-6926
등록일자 1994년 12월 2일
발행일자 1997년 11월 10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용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정균 홍순리
오상교 이병두
이태섭 이원호
편집주간 심재철 황동언
편집고열 장문숙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8
대표전화 (02)737-4005
F A X (02)730-177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호기를 맞고 있는 남북 경험

김 정일이 당 총비서를 승계한 이후 북한에서는 대외 경제 개방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남포와 원산을 보세 가공 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에 두 항구를 개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최근 대외 관계에서도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특히 재북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을 허용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개방을 위한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일시대의 공식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 개방의 폭과 속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해오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호 '초점'에서 본 연구원의 이병두 박사는 김정일 정권의 개방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어 '특집'에서는 김정일체제의 공식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의 대외 개방을 전망해보았다. 미국 국제경영연구원의 이재훈 수석연구위원은 "개방 확대를 위한 북한의 내부 정비"에서 개방을 위한 북한의 외교 행보와 특히 당·정 부문의 주요 중간 관리 계층에 대한 재교육 실시 등 내부 준비 작업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시사저널 남문희 기자의 "미국과 일본의 박정희식 북한 개발"은 제목 자체가 시사하듯,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식 개발 방식을 북한에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매우 흥미있는 글이다. 산업연구원 최신림 책임연구원은 "북한 개방의 진로와 우리의 대응"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남북 경험의 긍정적 역할을 지적하면서 남북 경험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호 '기획연구'는 외교안보연구원 서동만 교수의 "김정일의 경제 지도에 관한 연구: 북한의 공식 문헌을 중심으로"를 실었다. 이 논문에서 서동만 교수는 김정일의 경제적 리더십의 형태와 성격 및 그 변화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면서, 김정일의 당 총비서 취임과 함께 경제 운용시스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논단'에서 세종연구소 김기수 연구위원은 "한국과 비교한 북한 경제의 문제점: 대외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에서, 북한 경제가 실패하게 된 주요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있게 분석하고

있다. 내외통신 권경복 기자의 “북한의 농업 개혁: ‘큰모’ 재배법과 분조관리제 개선”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 시기 북한의 농업 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심화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농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다리’에서 중앙일보 김성진 전문기자는 경쾌한 리듬의 북한 최대의 히트곡 ‘휘파람’을 중심으로 “북한의 가요 정책”을 분석하면서, 북한의 가요가 김정일의 주도 하에 혁명성에서 통속성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호 ‘북한경제’의 사회간접자본 시리즈로서는 ‘중소형 발전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북한연구소 김승철 연구위원은 북한에 있을 당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형 발전소 건설 정책과 건설 과정 및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통일연구’에는 한양대학교 사회학과 전성우 교수의 “구 동서독 사회 통합 과정과 그 시사점”을 실었다. 전성우 교수는 이 글에서 구동독의 ‘사회주의적 인간형’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적 인간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호 ‘해외기고’에서 독일 쾰른연구소의 클라우스-디터 슈미트 박사는 “국유 콤비나트를 사유 기업으로: 구동독에서의 사유화”에서 신탁관리청(THA)식 사유화 접근 방식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대북 투자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들의 움직임도 매우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등 5개 기업에 대한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자 승인도 있었고, 대기업 관계자들의 잇따른 북한 방문도 있었다. 대부분의 관심들이 연말 대통령 선거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차기 정부 하에서 남북 경협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어찌면 지금이야말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좋은 시기일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근과 끈기를 갖고 대북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1997년 11월
편 집 자